

» 2013 채란업 전망

소비정체와 저단가 지속, 발빠른 대처로 위기 극복을...



김동기
한국양계농협 경제사업부 부장

2012년도 우리 산란계는 변화를 위한 진통이 그 어느 해보다도 심하였던 것 같다. 계란포장의무화, 동물복지인증제 시행 그리고 지난 7월 6일 수도권난가현실화로 계란 D/C폭을 줄이는 시도를 하였으나, 계란공급과잉과 불경기로 얼마 못가서 다시 D/C폭이 증가하고 있어 양계인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통계자료와 관련자료 등을 가지고 2013년 산란계 산업전망을 조심스럽게 준비해 본다.

1. 2012년 산란계산업 현황

2010년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발생으로 산란계 189만 마리와 산란종계가 매몰처분 되면서 병아리 생산이 감소되었고, 지속적인 산란 노계도태 지연으로 사육마리수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다. 또한 병아리 생산 잠재력 상승으로 201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증가하여 계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금년도 채란업계는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6,438만 마리에 이르는 사상 최유의 마리수를 기록하면서 전채란업계가 위기감에 빠졌고, 지속되는 난가 하락과 소비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과잉까지 겹치는 등 암담한 현실에서 산란계산업의 변화까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경영적자와 불합리한 유통구조, 까다로운 생산조건 충족 의무까지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 이르렀다.

표1. 산란계 생산잠재력 추정

구 分	2012년		2013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병아리 입식수수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개월미만	5,452	6,105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4~6개월	5,550	5,197	5,452	6,105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개월이상	49,426	49,229	49,183	48,634	48,846	48,951	49,057	49,161	49,266	49,369	49,472	49,575	49,677	49,779
자연폐사 제외수수 (0.5%/월)	49,179	48,983	48,937	48,391	48,601	48,707	48,811	48,916	49,019	49,122	49,225	49,327	49,429	49,530
도태실적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2,650
계	60,531	60,635	60,739	60,846	60,951	61,057	61,161	61,266	61,369	61,472	61,575	61,677	61,779	61,880

표2. 산란계 사육동향

구 分	3만수 이하	3~5만수	5~10만수	10~20만수	20만수 이상
사육수수(천수)	10,909	8,425	13,118	11,265	17,609
비율	17.8%	13.7%	21.4%	18.4%	28.7%
농가수(호)	767	232	193	81	48

2. 2013년 계란생산 및 가격전망

2013년도 산란계산업은 병아리 입식수수가 2012년 수준인 월 300만수로 입식되고, 도태수 수도 동년 수준인 월 265만수가 도태될 경우 내년도 산란수수는 6,100~6,200만수로 추정되며, 불황으로 인한 소비가 둔화될 경우 2012년도처럼 계란이 체화되고 저난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계사시설 신·증축 증가로 10만수이상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농가대비 47.1%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농장의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물동량은 갑작스레 변동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3. 사료가격 전망

2012년 7월 폭염에 따른 미 옥수수생산량 감소로 인해 폭등한 곡물을 2012년 12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해야 하는 국내 사료공장은 배합사료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달러 양적완화 조치로 인한 원화 강세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환율로 인해 약간의 가격인하 효과도 있지만, 원료가격 상승폭이 커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약 15~20%정도 가격이 상승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축산물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재보다 더 악화되어 생산비 이하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9월 이후 남미지역의 옥수수 생산량 증

특집 · 2013 양계업 전망

가와 콩 생산량 증가 등으로 선물가격의 상승이 다소 겪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내년 4월 이후에는 다소 떨어진 가격에 옥수수와 대두박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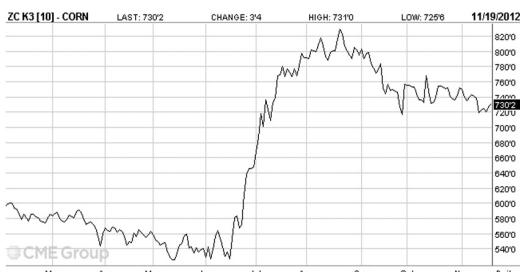


도표1. 2013년 5월 인도분 옥수수선물가격 동향

하게 되어 연초보다 다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어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에 더욱 집중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산성이 낮은 계군은 과감히 도태하는 등 농가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할 것이다.

4. 산란계질병경향 분석 및 2013년 예측

1) 2012년 질병경향 분석(분지 질병월보 참조)

가금티푸스는 2011년도 대비 790% 급증하였고 이는 육계의 종계관리 부실 등에 기인한 난계대감염 및 산란계 중추 업체의 무리한 중추출하로, 난계대감염 의심개체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경우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및 상시 예찰을 통해 철저한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절기 온습도 변동으로 인한 계군의 면역기능 저하로 전염성 기관지염의 발생이 증가하나, 올해 7월의 경우 신장형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2) 2013년 질병 예방대책

- 중추 입식시 살모넬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종계장의 계군을 입식하여 살모넬라, 마렉병 등의 난계대감염 유입을 방지하여야겠다.

- 마렉 백신은 중추, 양계농가에서 백신프로그램 내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이전 계군에서 발생경력이 있을 경우 백신사용을 고려해야한다.

이 때, 단가백신보다는 2가백신 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전염성기관지염은 농장 내에서 변이가 빠르고 최근 신장형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예방백신에 신장형 바이러스가 포함된 백신인지 확인하고 수의사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 2012년도 미국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고, 원료 수급상황 및 품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곰팡이독소 제거제 사용 고려가 요구되며, 농가에서도 사료 입고 시 반드시 관능검사 등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 기후의 변화

지구 평균온도는 최근 100년간 0.74°C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7°C 상승하였다. 1950년대 이후의 기온상승률이 20세기 전반에 걸친 상승률의 1.5배이며, 2000년대 연평균 호우일수는 1970년대에 비해 약 $1.4 \sim 1.6$ 배 증가하였다.

지구 평균온도는 시나리오별로 $1.8 \sim 4.0^{\circ}\text{C}$ 상승하고 전 지구 해수면은 $18 \sim 59\text{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2100년경 1970~2000 대비 기온은 4°C 상승, 강수량은

17%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말 우리나라의 이상고온 일의 전국평균기온은 27.5°C로 상승 전망되며, 특히 서부내륙지역 및 분지(대구)에서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강원산지와 남해안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상고온 일 기온은 2.3°C 이상 상승하고, 이상저온 일의 전국평균기온은 -16.5°C로 예측된다(국립기상연구소2008).

가축생산방식 및 규모의 변화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시설 현대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이변의 일상화에 따른 세계적인 곡물 및 사료작물의 생산, 국내 사료작물 생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축종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가축생산 규모가 축소 또는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맺음말

우리 산란계에도 변화의 물결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국내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 하는 자만이 이러한 모든 변화에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는 2012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들이 양계산물을 고를 때 품질을 따지는 눈높이가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의 산란계농가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고정관념의 전환이 필요하며, 계란의 품질이 곧 생산자의 얼굴이며,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이다. 과거의 경우 친밀관계에서 축산폐수와 AI등으로 배척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셋째, 대외적으로 FTA는 25건 74개국에 달



한다. FTA체결국인 미국, EU, 칠레, 페루 등과의 계란 및 관련제품의 양허 내용을 보면 난황은 12~13년 내, 난백은 5년 내, 종란은 10년 내, 종계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바, 이중에서도 미국과 EU, 중국과의 계란 및 관련 제품의 무역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며 국내 계란사업은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산란계산업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소비촉진이며, 계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설득하여야 하는바,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높이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란업계는 계란의무자조금 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하겠다. **양계**